

# 나주시, 빛가람 생활SOC복합센터 밑그림 나왔다

###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연면적4480㎡, 지상2층·지하1층 규모 10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착공 초입기...2023년 12월 준공 목표

나주시가 빛가람 혁신도시 정주여건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생활SOC복합센터' 건립 사업의 밑그림이 나왔다.

나주시는 최근 건축분야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난 달 실시한 생활SOC복합센터 건축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당선작에는 ㈜아이에스피건축사사무소(대표 이주경), ㈜리가온건축사사무소에서 공동 제작해 출품한 작품(사진·조감도)이 선정됐다.

이 작품은 건축물 배치, 공간구성 등이 도시 환경과 조화롭고 주변 시설과의 연계성, 친환경 경영 등에서 심사위원 모두에게 호평을 받았다.

총 사업비 158억원이 투입되는 생활SOC복합센터는 빛가람동 383번지(라온초등학교 옆

부지)에 연면적 4480㎡, 지상 2층·지하1층 규모로 '도서관동'과 '복합동'으로 나누어 건립된다.

생활SOC(Social Overhead Capital)는 일상 생활에 필요한 교육·복지·의료·문화·체육·공원 등 시민의 일상적 편의와 안전을 증진하는 각종 시설을 말한다.

센터 도서관동 1층에는 다목적홀복합센터, 유아·어린이자료실 등이 2층은 휴게실, 특화자료실 등이 들어선다.

복합동은 지하1층 기계·관리실을 비롯해 지상 1층에 상생푸드마켓, 물류·저온창고, 소포장실 등이, 2층에는 공유주방, 장난감대여실, 놀이체험실, 프로그램 운영실 등 공용 공간으로 활용된다.

시는 설계 당선작 선정을 통해 오는 10월까지



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센터 착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찬균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빛가람 생활SOC복합센터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명품 혁신도시에 걸 맞는 실용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건립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 곡성군, 정책실명제 활성화 행정 투명성과 책임성 높여

곡성군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도 정책실명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과 담당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요 현안 사업, ▲5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5천만 원 이상의 연구 용역,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 ▲그 밖에 정책실명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선정 기준이다.

곡성군은 정책실명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곡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지난 3월부터는 정책실명제 실시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해 선정 기준에 따라 부서별로 대상 사업과 정책을 자체 검토했다. 이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31건을 선정했다.

올해 곡성군의 대표적인 정책실명제 사업으로는 ▲청년, 귀농귀촌인의 교류 공간인 '비밀언덕25', ▲정주 인구 유입을 위한 체류형 거점 공간인 '스테이션 1928'이 선정됐다. ▲또한 섬진강 동화정원 조성사업 등 관광 분야 6개 사업, ▲생태 환경 복원을 위한 침실습지 훼손지 복원사업 등 각종 현안 사업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오곡 다목적실내체육관, ▲반다비 체육센터 등 주민편의시설 건립 사업,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 ▲체리특화단지 조성 등 곡성군의 주요 정책들이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최종 선정된 31개 대상 사업의 목록과 사업 내역서는 현재 곡성군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내년 초에는 올 연말 기준으로 그간의 추진 현황을 보완해 사업 내역서를 다시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곡성군은 '국민신청실명제'도 운영한다. 정책실명제 선정 사업 외에도 군민이 알고 싶어 하는 정책에 대해서 추진 현황 등을 공개하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분기별로 공개 대상 사업 신청을 받아왔지만 올해부터는 신청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주민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는 생각이다.

평소 관심 있었거나 알고 싶었던 정책이나 사업이 있다면 누구나 언제든지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정책 공개 신청을 할 수 있다. 곡성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우편이나 이메일 또는 군청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한 사업은 분기별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에 부합할 경우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 공개할 계획이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책실명제의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사업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동취재본부

## 구례지역자활센터 'Cafe 드레' 오픈

###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서비스형 카페

구례지역자활센터(센터장 양철승)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기반 조성에 도움을 주고자 오는 15일 지리산역사문화관 내에 'Cafe 드레'를 오픈한다.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상생의 문화 공간으로 차와 자활생산품을 판매하며 여가 활용의 공간으로 지역민에 편의를 제공하고,

경제활동을 통해 자활 참여자에게는 소득 창출과 안정적 일자리의 제공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했다.

양철승 센터장은 "지역사회의 사랑받는 Cafe 드레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기자



## 화순 지역공동체, 사회혁신 사업 본격 시동

### 2개 단체, 전남도 지원사업 추진...군, 행·재정 지원

화순 지역공동체가 전남도와 군이 지원하는 사회혁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화순군은 전남도 사회혁신 공모에 선정된 지역사회단체 2곳(스마트협동조합, 아름다운동행)의 혁신 활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 추진될 사업의 총사업비는 3800(도비 1440, 군비 1980, 자부담 180)만 원이다. 군은 지난 1월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과 지역공동체가 스스로 해결하는 사회혁신 활동 단체를 모집, 도 공모사업에 응모했다.

화순에서는 ▲노인&장애우 협동 치유농업 활동(스마트협동조합) ▲맛나GO~ 해피파GO~(아름다운 동행) 2개 사업이 선정됐다. 선정 단체는 올해 1년간 ▲인지장애 어르

신·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함께하는 치유 농업 활동을 위한 체험 공간 조성 ▲문화예술복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공연 활동을 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의 사회참여 확대와 상호협력관계 구축,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혁신 활동 지원과 함께 내년 초 우수 사업을 평가,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공동체 활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우리 군의 혁신과 변화를 위해 군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기자

## 담양군 담양읍, 경로당 운영 지침 교육 실시

담양군 담양읍은 최근 67개 경로당의 회장단 마을이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경로당 운영에 따른 지침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경로당 운영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기준 및 집행 허용 범위 등 2022년 변경된 기준을 안내했으며, 참석자의 질의응답을 받아 경로당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교육에 참석한 담양읍 김용조 노인회장은 "이번 교육이 코로나로 인해 운영을 멈췄던 경로당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경원 담양읍장은 "투명하고 내실있게 경로당이 운영되어 어르신들의 친목과 화합을 여는 건전한 장소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담양=박종영기자



#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판
-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날 포스코A&C